

테슬라 배터리 데이: 빨라질 전기차 시대

박연주 yeonju.park@miraesasset.com

김민경 minkyung.kim.a@miraesasset.com

테슬라 배터리 데이

향후 3년 내 배터리 원가 56% 절감 로드맵 밝혀

- 테슬라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훨씬 싸고 많은 배터리가 필요
- 향후 3년 동안 배터리 원가를 56% 낮추고 2022년까지 100GWh, 2030년까지 3TWh 규모의 생산 설비 구축할 계획
- 배터리 원가를 56% 낮추면 2.5만 달러의 전기차 생산 가능(내연기관보다 싼 전기차)
- 배터리 원가 절감은 1) 셀 디자인 개선 (14%) 2) 셀 공장 개선 (18%) 3) 실리콘 음극재 (5%) 4) 양극재 및 공정 개선 (12%) 5) 배터리 공정 통합(7%) 등을 통해 이를 계획
- 특히 셀 디자인 측면에서 기존 2170 배터리보다 커진 4689 배터리 공개. 용량 5배 늘리고 열 문제는 탭리스 디자인으로 극복. 10GWh의 파일럿 공장 조만간 완공될 예정

빨라질 전기차 시대

기술, 혁신, 자금력으로 배터리 원가 하락 주도: 전기차 전환 빨라질 전망

- 새로운 배터리 기술을 제시하기보다 기존 배터리 공정의 생산성을 개선시키는 방향인 만큼 상당 부분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임. 20~30% 수준의 원가 절감도 의미가 커.
- 결국 테슬라가 기술력(배터리 매니지먼트 기술, 공정 자동화 기술 등)과 혁신성, 그리고 자금력을 바탕으로 배터리 원가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
- 중기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이 예상보다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
- 한편 기존 기술의 개선 성격이 큰 만큼 선발 배터리 업체와 자동차 업체들도 유사한 기술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. 산업 전반적으로 배터리 원가 하락 가속화 전망.
- 특히 배터리 산업의 특성상 양산 기술이 중요. 테슬라도 건식 전극 공정에서 수율 개선의 어려움 언급. 선발 배터리 업체와 협력 가능성도 높아.
- 배터리 데이는 테슬라 중장기 성장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. 또한 전기차 시장 확대 측면에서 선발 배터리 업체를 포함한 전반적인 전기차 체인에 대해 긍정적 시각 유지

테슬라의 배터리 원가 절감 로드맵



자료: 테슬라,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